

여수시 청소대행업무 인력 이관 난항

내년부터 市직영 전환... 일부 민간업체 협약 외면 환경미화원 고용 불안

여수시가 추진하는 여수지역 청소 대행 업무의 개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청소업무 개선방안으로 여수시 도시공사와 대행 계약을 체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가운데 인력 및 장비 이관을 위한 일부 청소대행 업체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환경 미화원들의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앞서 시는 협약체결이 이뤄질 경우 286명의 환경미화원 모두의 신분보

장과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수지역 청소대행업체 측에 환경미화원 전원 고용승계와 차량이전 등을 위한 협약을 맺도록 요구했다.

시는 2차례나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업체에 협약을 체결토록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2일 현재 여수 보건공사·여천 보건공사·그린 여천환경·진남 위생공사 4곳 가운데 진남 위생공사 1곳만 협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노사 협의의동이

유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업체들이 청소대행 업무 사업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협약체결 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환경 미화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청소업체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및 차량이전 협약을 시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협의를 개최해야하는데, 고용승계업체와 구체적인 승계조건 등 세부적인 안이 없어 노사협의를 열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내 협의회를 열어 협의의 결과 합의되는 대로 통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보건공사와 여천 보건공사, 그린 여천환경, 진남 위생공사 등 여수지역 4개 청소대행업체는 그동안 수의계약과 장기독점 등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수=임문택기자 mtim@



늦가을 백의중군 길 걷기 순천 시민 1000여명이 지난 4일 열린 '이순신 백의중군 길 개설기념 걷기대회'에 참가해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날 (사)한국걷기연맹 전남지부는 순천만 정원박물관 입장권 1000매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신월동 도시숲 산림청 녹색도시 공모 우수상

여수 신월동 도시숲이 산림청이 공모한 '제6회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신월동 도시숲은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부지역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심어 지역 특색을 살리는 등 도시숲의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

례 공모·시상사업은 산림청이 해마다 생태적 건 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이 우수한 도시숲을 지자체로부터 공모받아 선정하는 행사다. 올해 공모전은 전국 16개 시·도가 7월부터 4개월간 녹색건강성이 우수한 도시숲과 가로수를 각각 선발해 참여했다.

전남도에서는 지금까지 2007년 화순 배물나 무 가로수, 2008년 곡성 소나무특화 가로수, 2009년 목포 십자형 도시숲, 2010년 광양 길호



지구 도시숲, 2011년 함평 엑스포 도시숲 등이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가암 관리사업 평가 고흥군 복지부 장관상

고흥군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의 '전국 국가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1차 78개 시·군·구 서 류심사에 이어 2차 22개 시·군·구 우수사례 파워포인트(PPT) 발표 심사 결과 성적을 종합해 결정됐다.

군은 '행복한 미소가 있는 건강 고흥'이란 주제로 2012년도 사업성과와 201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전남지역 암 센터 암 관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포상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전남도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도 최우수 상을 받은 바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건강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지숙기자 gjju@

쫄깃 쫄깃 벌교로 꼬막여행 오세요 9일부터 3일간 축제...뽕배타기 등 체험행사

"늦가을, 벌교로 꼬막 여행 오세요!"

"꼬막"을 주제로 한 이색적인 축제가 벌교군 벌교에서 열린다. 벌교군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벌교 제일교 특설무대와 대포리 갯벌 일원에서 '벌교 꼬막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인 꼬막축제는 '1등 꼬막, 1등 문화'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관광객 참여 체험 행사와 소설 '태백산맥'을 알리는 전시행사 등을 강화해 선보인다. 축제 첫째 날에는 해병대 군악과 함께 꼬막을 넣은 대형 비빔밥 시식행사, 농악놀이, 민속 율놀이, 품바공연 등이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꼬막까지 경연, 뽕

배타기 대회 등 본격적인 꼬막·갯벌 체험행사가 열리고 불꽃 쇼와 다양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소설 '태백산맥'을 알리는 태백산맥 문화기행, 태백산맥 OX퀴즈, 보성소리 명창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7090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갯벌인 대포리 일원에서는 갯귀신제, 농악놀이, 갯벌체험 행사 등이 축제기간 계속된다.

강박수 벌교꼬막축제 추진위원장은 "남도 갯벌과 대한민국 문화기행 1번지라는 특색을 잘 살려 가족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체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교=김은성기자 kim0886@

여수 금오도 비렁길 편의시설 확충 6억원 들여 내년 5월까지

도보 여행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광주일보 9월 7일 11면)는 지적을 받았던 여수시 금오도 '비렁길' (비렁길의 사투리)에 편의시설이 추가로 확충된다.

여수시는 "금오도 비렁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편의를 위해 올 3월 선보인 2차 구간에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시설은 ▲전망대

4개소(장지·학동마을 각 2개) ▲출렁다리 1개소(3 코스) ▲화장실 2개소(학동마을·장지마을) ▲음수대 1개소(장지마을) ▲CCTV 6개소(코스별 입·출구지역) ▲이정표 10개소(1 코스~5 코스 삼거리 중 이정표가 없는

10곳) 등이다.

현재 금오도에는 탐방로(18.5km) 5개 코스에 ▲전망대 6개소 ▲화장실 6개소 ▲음수대 5개소 ▲종합 관광안내표지판 6개소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한편 비렁길은 해안 기암절벽을 따라 개설된 트레킹 코스로 지난해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았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정읍 태인면 70억원 들여 정비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

정읍시 태인면 일원이 문화와 역사, 교육이 함께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모한다.

정읍시 태인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권역은 태인면 태성리·태창리·태흥리 등 8개 마을이다.

시는 내년부터 ▲기초생활기반 확충 35억원 ▲지역경관 개선사업 22억원 ▲지역역량강화 7억원 ▲각종 부대사업 4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2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유일

의 사립 도서관인 명봉 도서관과 연계되는 '수확 정식의 길'과 스토리가 있는 태인 골목길 투어 로드, 주민 커뮤니티 공간개발, 한벽정 정비, 역사가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발전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사업 선정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김생기 시장은 "시에서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살맛나는 공동체 육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개발청·특별회계 설치 등 담아 연내 통과될 듯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연내에 통과될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남기갑 의원은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남기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은 5일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에 법률안을 접수했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이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 등 173명(새누리당 88명·민주통합당 79명·비교섭단체 6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내고자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임위(국토해양위) 숙려기간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지만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여야 의지에 따라 상임위별 숙려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 국회 정기회기 또는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만금 사업은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에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다.

하지만 1991년 착공 후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 20년이 흐

른 2010년에서야 방조제가 준공됐고 이듬해에 이르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특히 방조제 완공 이후 바닷물을 빼내 이미 65%의 토지가 드러나 내부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여야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고, 여야는 이를 사실상 수용해 이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전북도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는 여야 합의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일"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지원이 확대되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근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14개 시군의의회 의정비 동결

전북도의회와 기초단체 의회가 모두 의정비를 동결했다.

전북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대다수 의회가 5년째 의정비를 올리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은 의정비가 수년째 동결되고 다른 시·도

보다 적어 소극 인상을 검토했으나 여론에 밀려 결국 동결했다.

최진호 도의회 의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의정비 인상요인이 있지만 올해 대폭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상동에 시립도서관 착공

정읍시 내장상동 옛 상동 정수장 부지에 시립 도서관이 새롭게 들어선다.

정읍시는 국비 32억원을 비롯해 도·시비 등 모두 80억원을 들여 연면적 3500㎡(지상 4층) 규모의 시립 도서관을 신축한다.

정읍시는 최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계획에 따르면 신축 도서관은 올 12월에 완공되

며, 2014년 4월까지 이전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공사에 따른 건축감리료 자체선임에 1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1층에는 강당과 어린이 시설·다문화 교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디지털 자료실·정기간행물실, 3층에는 열람실·노트북실·휴게실, 4층은 사무실과 보존 서고실·도서정리실·문화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장류로 만든 107m 메주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3일 순창 장류축제가 열린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주무대에서 107m의 메주를 동시에 만들고 있다. 107m는 100세를 상징하고, 제7회 장류축제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단신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愛)인'

남원시는 5일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춘향애(愛)인'으로 확정, 상표출원을 했다.

'춘향애인'은 청정 춘향골 남원에서 정성껏 생산된 사랑을 담은 농산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대표 브랜드로 사용된다.

시는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 엄격한 관리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농산물로 육성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김제시 문화유산 축제 '굿 보러 가자' 공연

김제시와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사장 이세섭)은 공동으로 최근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무형문화유산 축제인 '굿(GOOD) 보러 가자'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고무(五鼓舞)의 경쾌한 춤사위를 시작으로 안숙선 명창과 왕기철 명창의 입

체창, 줄타기 공연, 부채춤, 세사 소고춤, 판굿 등이 이어졌다.

줄타기 공연은 영화 '왕의 남자'에 출연한 권원태(종우무형 문화재 제3호 이수자) 명인이 출연해 화려한 기술과 아찔한 공연을 선보였다. /김제=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 10명 위촉

정읍시는 최근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원은 당연직(문화행정복지국장, 농·축산센터 소장, 행복네트워킹 사업단장) 3명과 위촉직 7명 등 모두 10명이다.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는 정읍시 마을만들기 5개년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분석·자문,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생기 시장은 위촉식에서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정읍 지역 전체의 활로를 찾아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신안군과 문화교류업무 협약

순창군과 신안군(군수 박우람)은 최근 장류축제 행사장에서 문화 교류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꾀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내 특산물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순창 장류축제' 및 '신안 천일염 축제'시 상호 홍보 전시관을 운영한다.

황숙주 군수는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